

국내 유가 '고공행진'... 서민가계 부담 '가중'

지역 휘발유값 5주 연속 상승
광주시 1692원·전남도 1700원대
중동정세 악화로 국제유가 급등
유류세 인하에 세수결손 우려도



국내 휘발유 가격이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말까지 연장한 가운데 세입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스스

국내 유가가 연일 오르면서 광주·전남 지역 휘발유값이 5주째 상승하며 서민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시행하는 등 물가 안정에 나서고 있지만 일각에선 정부 재정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는 리터 당 1708.4원으로 전주(1695.1원) 대비 13.3원 올랐다. 경유 판매가는 전주(1562.4원) 대비 4.4원 오른 1566.7원을 기록했다.

지역별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서울이 직전 주 대비 10.2원 상승한 1779.6원으로 전국 평균 가격 대비 71.2원 높았다.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1679.8원으로 전주 대비 14.5원 올랐으나 전국 평균 대비

28.6원 저렴했다. 같은 기간 광주지역 휘발유 판매가는 1692.47원으로 직전 주(1677.60원) 대비 14.87원 올랐다. 전남 지역 휘발유 가

격도 직전 주(1688.48원) 대비 14.48원 오른 1702.96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이 1700원대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1월을 마지막으로 6개월 만이다. 광주·전

남 경유값은 각 1549.74원, 1568.08원으로 직전 주와 비교해 4.32원, 5.88원 올랐다.

이날 광주지역 평균 휘발유값은 리터당 1696.14원으로 전날보다 0.34원 올랐다. 경유는 1547.24원을 기록하며 전날보다 1.06원 낮아졌다. 전남지역 평균 휘발유, 경유값은 1710.23원, 1569.83원으로 각각 전날보다 0.30원, 0.04원 상승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보복 공습 등 중동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해 국내유가도 덩달아 널뛰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5일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며 세금을 이용한 물가 안정에 나섰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돼 세수 결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2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원 줄었다. 지난해 법인의 사업실적 저조로 인

한 법인세 납부실적이 주요 감소 원인으로 꼽혔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 목표치는 77조 7000억원로 편성했지만, 지난달까지 법인세 감소분이 5조5000억원에 달하면서 예상 감소분인 2조70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소득세는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소득세 2000억원 증가에 불구하고, 주요 기업 성과급 감소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액이 증가해 근로소득세 5000억원 감소 등으로 4000억원 감소했다.

이와 함께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증여 거래 감소 영향으로 3000억원, 관세는 수입 부진으로 2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에 쓰이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지난달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국제유가 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연장 조치가 진행되면서 세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른 연간 교통·에너지·환경세 감소액은 5조5천억원 수준이었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13일 금융경제강좌 개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오는 5월 13일 오후 3시 광주전남본부 1층 강당에서 올 상반기 한국은행 금융경제강좌 3회차 강의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강좌에서는 디지털금융 관련 법·제도 및 정책 분야의 전문가인 예자선 변호사가 '가상자산 투자와 정책: 비즈니스 모델로 이해하기'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예자선 변호사는 예금보험공사 변호사, 쉐카카오페이 법무실장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핀테크 규제와 실무(지급결제와 본인인증)/금융플랫폼과 금융회사의

비즈니스)', '블록체인과 코인-누가 돈을 버는가' 등 디지털금융 및 가상자산 관련 여러 저서를 출판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데, 가상자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이번 강의를 포함해 올 상반기 중 총 4회의 강좌를 개최할 계획으로, 관심있는 일반인은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무료로 참가 가능하다. 최권범 기자



"양림동 인기 빵집 만나보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에 양림동의 인기 베이커리인 '양인제과'가 신규 오픈했다. 양인제과는 광주 '빵지순례' 필수코스 중 하나로 지난해에는 국내 맛집 가이드인 블루리본서베이에 선정되기도 했다. 대표 메뉴로는 크로와상과 유명하며 앙버터, 아몬드, 초코 등 다양한 맛으로 즐길 수 있다. 또 직접 굽은 커스터드 베이스의 무스크림과 신선한 과일로 만든 케이크, 데니쉬 식빵 등 다양한 풍미를 지닌 베이커리 제품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TP,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기관' 지정

윤리·과학적 타당성 여부 심의

광주테크노파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올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 Institutional Review Board) 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목적과 절차 등이 윤리적·과학적으로 타당한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동의를 구했는지 등을 기관 자체적으로 심의해 해당 기준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지난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 'K-Health 국민의료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광주 소재 의료기관의

의료데이터(EMR, PACS 등)를 지역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 2025년까지 지역 2300개 의료기관 중 약 20%인 450개 의료기관의 보유데이터를 수집 중이다.

의료데이터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헬스케어데이터 수집을 위해 올해까지 총 6곳을 개소를 목표로 지역 자치구 내에 '라이프로그건강관리소'를 구축해 운영 중에 있다.

의료·헬스케어데이터는 개인의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연구에 대한 윤리성과 정보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필수적이다.

광주테크노파크는 법인 내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양질의 데이터 기반 기업지원서비스를 위해 법인 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소영 기자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6조6000억 '깜짝 실적'

전년 1분기 대비 931% 증가
매출 71조9천억 12.8% 늘어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1~3월)에 연결 기준 매출 71조9156억원, 영업이익 6조6060억원을 올리며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같은 분기 63조7454억원 대비 12.8% 증가했다. 지난 2022년 4분기(70조4600억원) 이후 5분기 만에 70조원대 매출을 다시 회복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1분기 6402억원보다 931.9% 증가했다. 예프엔가이드가 집계한 이달 초 영업이익 컨센서스(최근 3개월 증권사 추정치 평균) 5조2636억원보다 1조원 이상 높았다.

사업부문별로는 반도체 사업을 맡고 있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의 영업이

익이 1조91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4분기(2700억원) 이후 5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매출액은 23조1400억원으로 전년(13조7300억원) 대비 68% 증가했다. 특히 DDR5(Double Data Rate 5) 및 고용량 SSD(Solid State Drive) 수요 강세가 이어진 메모리 매출이 같은 기간 8조9200억원에서 17조34900억원으로 96% 급증했다.

파운드리 사업은 주요 고객사 재고 조정이 지속되면서 매출 개선은 지연됐지만 효율적 팹(FAB) 운영을 통해 적자폭은 소폭 축소됐다. 또 4나노 공정 등 첨단 공정 경쟁력 향상으로 역대 1분기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

DX(디바이스경험) 부문의 경우 매출은 47조2900억원으로 전년 1분기(46조

2200억원) 대비 2%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이 전년(4조2100억원) 대비 3.1% 감소한 4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MX(Mobile eXperience)는 스마트폰 시장의 역성장에서도 갤럭시S24 시리즈의 판매 호조로 매출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33조530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이 11.2% 감소한 3조5100억원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모바일 AP(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 등 부품납품 단가 상승의 영향으로 이익률이 축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

TV와 가전 사업은 시장 수요 부진에도 실적 선방을 거뒀다. 매출은 전년보다 4% 감소한 13조4800억원, 영업이익은 178.9% 증가한 53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1분기 영업이익은 전 분기(500억원 적자) 대비 흑자 전환을 거뒀다. 최권범 기자

全南日報 |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와 함께 하세요
구독신청 (062)510-0471 | 광고문의 (062)512-0100